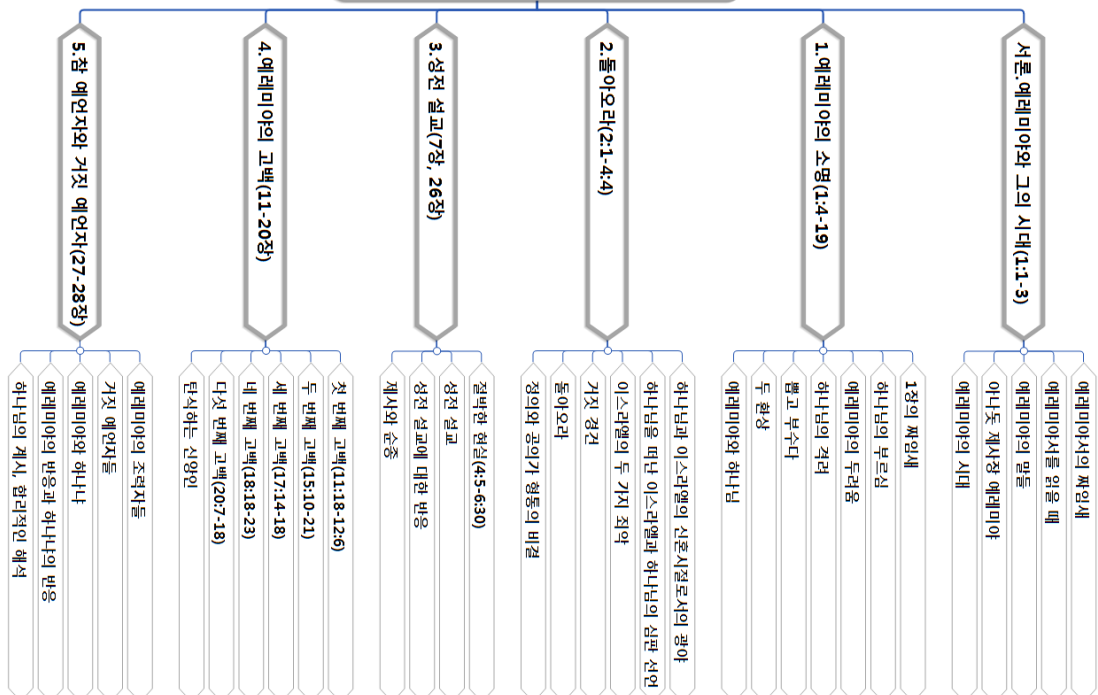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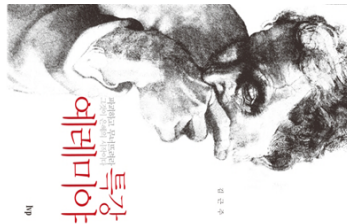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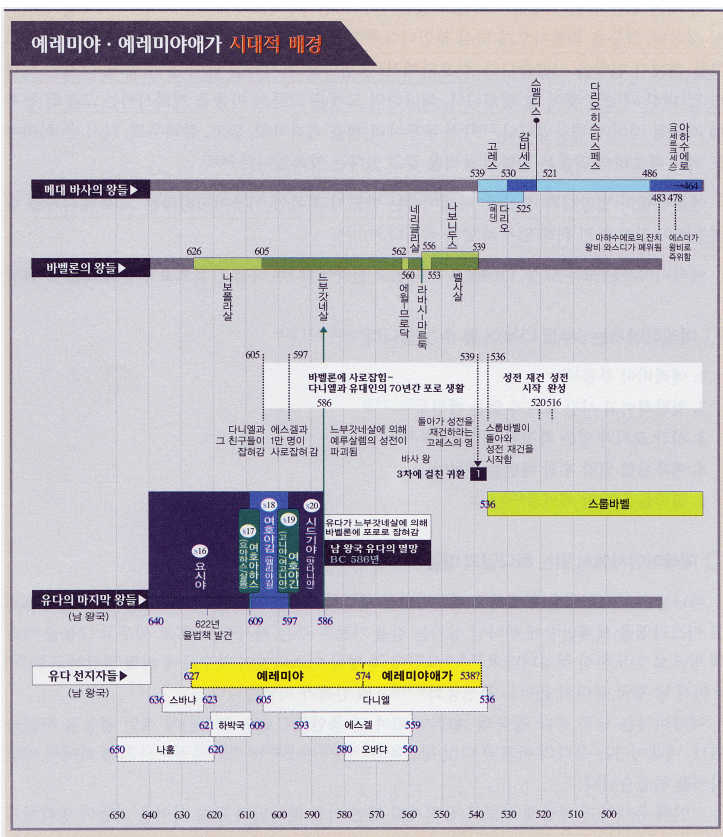


(김근주, 특강 예레미야, IVP제)





## B.여호아하스(3개월간 통치)

- 1)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다의 지도층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살룸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불렀습니다.
- 2)살룸은 애굽을 배척하는 부왕 요시야의 외교 정책을 지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만형들을 물리치고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 3)그는 유다 백성이 뽑아 세운 최후의 왕으로 23세에 왕이 되어 겨우 석 달 동안 재위하게 됩니다. 즉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 그를 폐위시킨 후,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명합니다. 이후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만형 엘리야감을 내세워 유다의 왕으로 세워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 C.여호야김(주전 609-597년)

- 1)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이복형입니다. 그는 바로 느고에 의하여 25세에 왕이 되어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대담하고 흥악한 통치자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우리야는 그의 우상숭배를 비난하다가 암살되었고, 예레미야도 우리야와 같은 처지에 있다가 간신히 화를 면하기도 합니다.
- 2)여호야김 또한 과중한 부역과 증세로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을 뿐 아니라 호화스러운 궁전을 건축하여 국력을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그의 안중에는 정의도 없고 연민도 없었으며, 오직 그의 호사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력은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 3)그 결과로 갈그미스(BC 605년) 전쟁에서 애굽을 이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BC 597년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구 가운데 귀중한 것들을 골라서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자기 왕궁에 두기도 하는데, 후일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다시 되돌려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완전히 친 애굽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 있어서 부왕 요시야와 상반되었습니다.

## A.요시야(주전 640-609년)\_31년간 선한 왕

- 1)그의 치리기간은 유다 창건 이래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므낫세 및 아몬의 악정에 뒤이어 요시야는 8세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합니다.
- 2)31년에 걸친 그의 치세는 유다에 있어 일대 전환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국제 정세의 변화로 BC 625년 나보폴라살에 의한 신바벨론 건설과 BC612년 앗수르의 수도니느웨가 함락되어, 그 찬란한 앗수르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3)요시야는 선한 정치와 종교 개혁으로 대표되는 왕입니다. 재위 12년에는 모든 이방 우상을 격멸하고 이교적인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재위 1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서를 발견하여 이를 접하고,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 4)즉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 유다가 현재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가 그 이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그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갖가지 우상들을 모조리 색출하고 불사르고 묘지에 뿌렸습니다.
- 5)또한 북쪽 벤엘에 세운 우상 제단들과 신당을 모두 헐고, 우상 예배를 행하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뼈를 취해 제단 위에서 불사랐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 선포된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왕상 13:2)
- 6)요시야의 이 같은 종교 개혁에 대하여 성서는 요시야와 같이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7)이 같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가 앗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북진할 당시, 느고의 교섭 제의를 무시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나섰다가 므깃도에서 불행하게도 한 궁수의 화살에 의해 전사합니다.

## D.여호야긴(주전 597 3개월 10일)

- 1)여호야긴은 왕이 되어 100일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악행을 일삼아 그 또한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성전의 귀중품들도 다시 대량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 2)여호야긴은 바벨론 옥에서 37년간 갇혀 있었으나, 후에 출옥이 허락되어 바벨론에 잡혀간 다른 왕들보다도 우대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대신 BC 597년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 E.시드기야(주전 597-586년)

- 1)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며 여호야긴의 숙부인 맛다니아를 세워 유다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로 개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21세에 즉위, 11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악인은 아니었지만 정신 박약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존경하여 호의로써 대하였으나, 무모하고 우매한 당시 귀족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 2)시드기야는 고위층과 제사장들과 함께 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방의 더러운 풍속을 따르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 놓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언자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 3)그는 반바벨론파와 친애굽파의 압력으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 결과 BC 58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철저히 항복화시키고, 유다의 군사 및 예루살렘 성내의 모든 백성들을 막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 4)시드기야 또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의 아들들 또한 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2년 후 BC 586년에 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 5)이리하여 유다 민족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축출되고, 이 땅에서 유다 왕국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BC 586년) 그들은 바벨론에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사 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대하 36:11-23, 왕하 25:1-7)

## 예레미야 전체구조

### 1-25장 주로 유다백성을 향한 말씀

#### 1장 서론

- 1장 1-3절 표제
- 1장 4-10절 예레미야의 소명
- 1장 11-16절 두 가지 환상(살구나무와 끓는 술에 관한 환상)
- 1장 17-19절 파송

#### 2장 1절-4장 4절 이방 제의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발

#### 4장 5절-6장 30절 북방으로부터 오는 적

#### 7장 성전설교

#### 8-10장 개별적인 말씀들

#### 11-20장 예레미야의 고백록(11장; 12장; 15장; 17장; 18장; 20장)

- 11장 언약 파기
- 12장 예레미야의 탄원
- 13장 허리띠 상징행위
- 14장 가뭄 재앙
- 15장 예레미야의 탄원
- 16장 상징적인 독신생활
- 17장 지혜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탄원
- 18장 토기장이의 비유
- 19장 깨진 오지병 상징행위
- 20장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

#### 21-24장 왕과 예언자에 관한 말씀

- 21장 11절-23장 8절 “유다 왕가”에 대한 말씀
- 23장 9-20절 소위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
- 24장 두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

### 26-45장 주로 예언자의 활동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

- 26장 성전설교 이후의 예레미야의 운명
- 27-28장 거짓 예언자들과의 갈등
- 29장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
- 30-31장 소위 “에브라임에 대한 위로의 소책자”
- 32장 아나돗의 땅 구입이라는 상징행동
- 33장 구원의 말씀
- 34장 시드기야의 운명
- 35장 레갑 족속의 모범
- 36장 바룩이 받은 두루마리와 그 운명
- 37-44장 예레미야의 수난사(소위 바룩의 전기)
- 45장 바룩을 향한 구원의 말씀

### 46-51장 이방나라를 향한 말씀

- 46장 애굽에 대한 말씀
- 47장 블레셋에 대한 말씀
- 48장 모압에 대한 말씀
- 49장 암몬,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부족 그리고 엘람에 대한 말씀
- 50-51장 바벨론에 대한 말씀

### 52장 부록: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 포로

### [예레미야서 핵심성구]

####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 7장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 8장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앞드러질 자와 함께 앞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고통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리다

####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 서론. 예레미야와 그의 시대(1:1-3)

- 1)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요시아 13년
- 2)유다는 반복되는 열강의 침략으로 어느 때보다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했다.
- 3)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이스라엘을 지탱해 주었던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라는 두 기둥을 때려 부수려 했다.
- 4)다윗 언약:유다에 세우신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보증하는 언약 // 성전: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 5)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사람 :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명을 받은 이의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선택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 6)예레미야서는 우리의 어설픈 신앙관을 송두리째 허물며, 우리의 거짓 안정감과 평안을 부숴 버린다.
- 7)예레미야서는 대체로 연대순으로 전개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 8)예레미야는 다가오는 멸망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포해야 했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촉구했다.
- 9)패망과 진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심판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회복, 새로운 다윗에 대해 선포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명실상부하게 뽑고 파괴하고 세우고 건설하는 일이었다.

## 1.예레미야의 소명

- 1)스스로 정한 비전이나 확신이 아니라,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그로 하여금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한 원천이었음을 알게 된다.
- 2)부르심을 받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격려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
- 3)'거룩'은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
- 4)만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나를 그에 맞게 지으시고 조성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 5)예레미야의 40년이 넘는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으로 시작하는 삶이요. 그에게 맡겨진 말씀으로 인한 슬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실을 앞당겨 살아가는 이의 슬픔이 가득 찬 삶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6)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한다.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슬퍼한다. 모세를 부르고 보내실 때 그 또한 두려워하며 주저하였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라는 바울의 고백 역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절절히 담고 있다.
- 7)좀처럼 자신감을 얻기 힘들었을 예레미야,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처럼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준다.
- 8)참된 회복은 철저한 파괴 위에서 이루어진다. 확고한 것들을 일거에 부정하고 뒤엎는 변혁적 사고를 뿌리에 둔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떻게든 기존 체제를 보수하고 지탱하려는 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 9)살구나무 가지 환상->'샤케드' // '쇼케드'->지켜보다 //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지켜보시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임을 단단하게 이르신다->'말씀'을 뜻하는 단어인 '다바르'는 '말'인 동시에 '사건'이다.
- 10)끓고 있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서 당장이라도 남쪽으로 쏟아질 듯했다->북쪽에서부터 오는 재앙->북쪽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
- 11)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저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계속된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순종으로 드러난다.->하나님이 도우시면 모욕과 수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

## 2.돌아오라

- 1)광야 시기가 말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시절->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전부인 시절이 광야 시절이며,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는 돌아갈 회복의 때가 광야 시절이었다.
- 2)광야의 이스라엘과 스스로 아이라 느끼는 예레미야의 이미지가 겹친다.
- 3)요진 피터슨, "인류의 오래된 웅고집 중 하나가 하나님을 길들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려는 시도"
- 4)오직 정의를 물갈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여다(암 5:24)
- 5)이들은 여전히 야훼를 부르며 제사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생각하지도, 바알을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야훼를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하면서도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 6)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 7)이스라엘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변명한 바로 그 시대에, 종교적인 풍성함과 가난한 이들의 피 흘림이 공존
- 8)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 양상은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들이 난무하는 오늘 우리 교회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도 닮아 있는가.
- 9)정통적인 신앙고백의 이면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이 욕망을 정당화시켜 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성전에서 이들을 향하여 사죄와 용서를 선포하는 제사장들이었다.
- 10)이스라엘이 돌아갈 곳은 바로 야훼 하나님. A)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B)흔들리지 말라. C)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
- 11)이웃과 마음을 같이하며 자신에게 대하듯 이웃을 대하는 올바른 관계
- 12)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원칙. 이미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하다.->가난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며, 무죄한 피를 흐르게 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 3.성전설교(7장, 26장)

- 1)그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였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으니, 백성은 이 성전에 나아와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2)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 3)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전부터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 4)성전과 땅은 이스라엘의 올바른 삶이 전제될 때 의미가 있다.
- 5)'길과 행위를 바르게'하라는 말은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뜻.
- 6)'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이는 예레미야의 설교에 따르면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 달리 도움을 청할 길 없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 7)'수직적 차원의 회복'은 '수평적 차원의 회복'으로 구현된다.
- 8)'다른 신 숭배'를 바알이나 그모스, 마르둑, 느보 같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는 신앙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다.
- 9)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는 사람은 결코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며 살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는 신앙은 좋되 이웃을 섬기는 삶이 약한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10)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나 지금의 우리 교회에게나 가장 강력한 대적은 재물로 구체화된 우리의 욕망이다.
- 11)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그릇된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성전 안에서의 삶이 성전 밖에서의 일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반대로 성전 밖에서의 일상은 성전의 존재를 의미있게 만든다. 올바른 행실이 수반되지 않는 영성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 12)그가 사는 삶을 보면 그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드러난다.
- 13)성경 구절들을 틀림이 없이 암송하고 인용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에 취한 오늘의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의 이 고발 앞에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싸구려 사죄 선포, 싸구려 은혜의 약속이 난무한다. 사죄와 은혜를 선포하는 이들이 성전 혹은 교회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혹은 예배와 성경 공부를 절대시하는 것도 비슷하다.
- 14)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정의를 행하지는 않으면서 성전을 야훼의 집이라 내세우며 구원받았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이 백성의 삶이야말로 멸망의 원인이었다.
- 15)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어가는 삶을 원하셨다.
- 16)제사의 본질이 사람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즐기치게 선언한다.
- 17)"제사는 순종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다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데 있다."
- 18)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성전 밖에서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우상숭배일 뿐이다.